

공정거래와 건축인의 자세

김 지 태
삼이건축사사무소

국화향기 그윽한 가운데 맞이하는 10월달은 오랜만에 색다른 감회를 갖게 한다. 얼마전 제10회 아시안게임 (Asian Sports Game)에서 거둔 알차고도 풍성한 성과는 국민적 자신감과 일체감을 느끼게 하였고 세계 속에 한국의 좌표를 더욱 빛나게 한 쾌거라 하겠다. 문화의 달인 10월에는 각계에서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建築3団体(학회, 사협회, 가협회 등)에서는 秋期 학술발표회, 각종 건축작품전시회, 협회 총회 등의 준비로 부산하다.

우리 협회도 건축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학생 및 신인 건축설계작품 전시회와 회원작품 전국순회전시회의 막을 올리게 되며 때맞추어 8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협회의 연간행사 중에서 10월달의 가을정기총회야말로 행사중의 행사로서 그 비중이 큰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생각해본 바로서는 20여년의 성년이 된 협회인 만큼 총회의 모양도 무엇인가 좀 달라져야 할 것 같다. 아직도 우리의 총회에 구태의연한 형식과 내용이 담겨질 것이 아닐런지?

이웃 日本建築士會의 전국대회는 1년에 한번 있는 모임인 만큼 오랜만에 그리운 동지들을 만나보는 그야말로 만남의 場으로서의 기쁨과 반가움이 교차되는 가운데 건설적인 의견을 진지하게 나누는 회의진행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쳐 마치 축제와 같은 행사로 끝난다고 한다. 우리협회도 미래지향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야말로 성과있고 생산적인 총회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나 매년 총회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아직도 소음의 메이리 속에서 불필요한 에너지소모가 많은 것 같다.

지난날 협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떠난지도 어언 2년의 세월이 흘렀다. 협회 회원인 이상 당연히 관심을 갖고 협회의 활동상황과 현황이 어떠한지

궁금하던 차에 지난 6월중순경 울산에서 산업시찰을 겸한 협회주관의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바 현집행부가 부심하고 있는 여러 현안에 관한 설명과 이에 대한 기탄없는 의견교환 및 토론의 기회를 가졌었다. 그런데 그 縣案중에서 公正去來委員會의 승복하기 어려운 시정 조치에 우리들은 이목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설계발주는, 발주자 임의대로 설계자를 선택하되 政府予算會計法規에 따른 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시행하고, 본 협회의 윤리규약 제 9 조는 공정거래법정신에 비추어 위배되니 이를 삭제하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내용의 요지였다. 이는 협회 창립 후 20여년간 별일없이 우리들의 건축사로서의 권익을 보장하던 질서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창작활동상 앞으로 상당한 지장을 예견케함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업무활동에 쐐기를 박는 것이나 다름없는 판국으로 몰아가고 만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하나의 조형공간을 위해 형이상학적인 예술적인 측면과 공학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를 소화하는 과정을 통해야 하는 다시말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조형공간예술작품을 어찌 일반물품 제조와 같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간의 경위로 보아 협회집행부 나름대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부각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평가할 때 별로 소득 없는 것으로 보아 徒勞에 그치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함에는 집행부만이 아닌 전회원들의 중지와 힘을 모으는 한편 과감한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여론에 호소하여 폭넓은 이해를 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대처했던들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닐런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 회원들도 우리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열의가 부족하였을뿐 아니라 강 건너 불 보는 듯한 자세가 아니었던가, 피차 생각해 볼 문제라 하겠다. 이 시점에서 본인은 앞으로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훌륭한 조형예술작품의 창출을 위해 건축인에게 마음껏 연출 솜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助長해 주고 아울러 이 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정책면에서의 당국의 깊은 배려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협회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한 재고를 바라는 뜻에서 재심청구를 제출한 바 있어 그 귀추는 어찌될런지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문제는 앞으로 협회윤리규약의 입찰에 따른 불참조항이 없어지더라도 건축인인 우리 회원들의 자세는 흔들림이 없이 초연히 조형창작예술인답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설계입찰공고에 응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한다.

현재까지 우리의 단결력으로 우리의 질서가 유지되어 왔음을 상기하고 이 나라의 건축문화적 유산을 남겨놓기 위해서도 우리는 더욱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펴나가는 반면에 권익보호를 침해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방패를 들고 스스로 지켜 나가며 싸울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다는 현실에 눈을 크게 떠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자 한다.

가을이 한창인 이달 10월말에는 협회의 큰 행사로서 마지막인 전국총회를 끝낸다. 앞으로 2년동안 협회살림을 맡아 수고할 회장을 비롯한 몇분의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협회 임원은 적어도 철저한 자기부정의 심자기를 꺾어진 예수와 같이 만민사랑으로 승화한 자기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회원과 협회발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동분서주할 각오를 해야 한다. 협회의 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신 임원께 기대와 격려를 드리면서 10월호 건축사지 첫 머리의 글을 맺는다.